

안태석, 장선숙 선교사 4 월 기도제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출 14:15)’



<주일 오후제자훈련>

울초부터 저희들은 저희들의 교회의 굳어져 버린 기존 리더쉽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고 가려고 씨름하였는데 저희들이 먼저 지쳐 포기할 것 같아서, 3월부터 누구든지 말씀을 배우고 싶고 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조용히 숨어있던 분들이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 나아오고 교회에 섬길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리더들도 더욱 열심을 가집니다. 감사하게 교회의 분위기가 참 좋아져 갑니다. 딱교회는 늘 조심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 줄이는 지난 1 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담대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움추리며 건디기보다 이제 저희들은 발걸음 한걸음 더욱 담대하게 떼어보려고 합니다. 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끊임없는 열정에 감사, 20 명의 제자 훈련 반(주일, 화요일)이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 어린이날행사를 통해 교회이웃들과 교사, 아이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 주심에 감사, 자녀들을 주의 손아래 지켜 주심에 감사, 한 달 동안 풍성하게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셀 그룹 모임>



<어린이 캠프>

<기도 제목>

1. 은혜: 갑자기 40 도를 훨씬 넘는 뜨거운 날씨 때문인지 3 월에 저희 두 사람 2 주 동안 감기몸살로 고생했습니다. 4 월이 태국의 가장 더운 날씨인데,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빠질 수 없는 모임과 회의로 한달이 꽉 채워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딱교회: 주일 오후 제자훈련반과 화요일 저녁제자훈련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 무성르 믿는 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성도 간에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교인 집에서 열리는 셀 모임이 개인과 가정이 변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길, 3 월에 어린이 캠프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교회 이웃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 월에 방학을 맞아서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고 주일학교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나’는 사역자로 헌신하고자 하지만, 두 자녀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가야하는 사역자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힘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생‘간’이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장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턴 사역자 “깨오”가 왔는데 사역을 잘 배우고 적응하며 사역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화 : 070 8251 0151(인터넷폰) / ++66 845 307 544(태국)

이 멜 : taeseok77@hanmail.net/ ~@gmail.com / 카 톡 ID : Simplelifepeter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